

14. 다른 수상 불시착 시도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가?

4번의 여객 (화물) 비행기가 의도적으로 수상 착륙한 사례가 문서로 남아있다. 다음의 따라오는 도표들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생존 비율을 보여준다:

에어로플로트 (옛 소련 국영 항공사) 투폴레프 (Tupolev) 124, 10월, 1963, 네바 (Neva) 강, 탑승자 52 명, 생존자 52 명, 100% 생존율
ALM DC9, 5월 2일, 1970, 카리브 해, 탑승자 63 명, 생존자 40 명, 63% 생존율
이디오피언 항공사 767, 11월 23일, 1996, 코모로 섬 수면, 탑승자 172 명, 생존자 45 명, 26% 생존율
마이애미 항공 전세기 CV-340, 12월 4일, 2004, 몰 레이크, 플로리다, 탑승자 2 명, 생존자 2 명, 100% 생존율

더 자세한 정보는 수상 착륙 페이지를 참조.
(<http://www.rescue007.org/ditchings.htm>)

부록:

이스라엘에 있는 소비에트 형무소/정신병자 감옥/강제노동 수용소 연구 센터로 입수된 보고에 근거하여, 우리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수화물과 함께 소련측 보트와 배에 탑승된 다음 납치되었으며, 이 보트와 배는 KGB의 로마넨코 장군 지휘 하에 있었던 해변 경비정이었고, 극동관구 부사령관인 스트로고프 장군 명령으로 민간 어선도 구조 작업에 불려 왔다고 믿는다. 이 부사령관은 6:54분 - 소련 레이더가 추적할 수 없었던 고도인 1,000피트 상공으로 KAL 007기가 하강한 바로 16분 후에 이를 명령했다. (스토리 섹션 (<http://www.rescue007.org/story.htm>)-'파괴에서 탈출까지' 참조). 우리는 소련 태평양 해군 사령관인 블라디미르 바실예비치 시데로프(Vladimir Vasilyevich Siderov) 제독이 이즈베스티야 신문에 낸 성명에 맞추어, "조그만 보트"들은 이미 KAL기가 착륙 (시데로프 제독에 따르면 착륙이 아니라 "추락"-이 제독 또한 바다에 시신이 한 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) 한 27분 후에 그 장소에 도착해 있었다고 믿는다. 게다가, 이즈베스티야 신문이 보도한 잠수부들의 보고에 따르면, 이들은 비행기가 하강한 지 2주가 지난 후 침수한 KAL 007기에 들어가 보았으며 비행기 내에든 그외 장소에서든 시신이 한구도 없었다는 것에 놀랐다. (KAL 007, 미국 7번 함대, 그리고 대 러시아 제국의 계약 (<http://www.rescue007.org/ruse.htm>) 참조). 그리고 소련 관리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"폭발" 지점 수면에도 시신이 한구도 없었다고 한다. (소련측이 신발류는 213켈레-KAL 007기 탑승자 수의 269명 중 74%에 해당하는-나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! 12번 질문 참조-소련측에 의해 회수된 승객들의 소지품목 중 어떤 것이라도 승객 구출에 대한 의문점에 관련된 것이 있는가? 그 신발들은 어떠한가?).

만약 우리가 믿는 바와 반대로 KAL 007기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구조되지도 않았고 납치되지도 않았으며, 게다가 사실 그대로 바다 위 또는 KAL 007기가

난파된 바다 안에 시신이 한 구도 없었다 한다면, KAL 007기의 고무 보트
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소련 측의 "조그만 보트"들이 -30분 내에- 도착하기
전까지 모네론 섬 수상에 떠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맞다.
50도 온도의 물-그날 아침 모네론 섬 바다 온도-에서 수영할 수 있는
사람들이나 구멍 조끼 또는 다른 떠 있을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
살아남을 수 있는 비율을 보여주는 다음 생존율 편람이 이를 근거해 준다:

50 분까지 - 실제적으로 100% 생존율

3시간 반까지 - 50 % 생존율

3시간 반 이후 -급속도로 생존율 0% 까지 떨어짐 (도표는 공화당 의원 연구
보고서에

그러나 죽었건 살았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. 그렇다면 이
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?